

# 새 천년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에 관한 연구

김 영 한<sup>\*)</sup>

## 목 차

### 머리말

1. 국제적 흐름
2. 새 천년의 시대적 당위성
3. 연합에 대한 장애 요인
4. 연합과 일치의 구체적인 방향

### 맺음말

## 머리말

지난 2000년 7월 6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연합운동추진 특별위원회가 주요 교단 교단장과 총무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연합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기로 합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한국교회가 분열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 반세기 만에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냉전 속에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자리를 함께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

\*) 본교 기독교학과 교수, 기독교학대학원장

1) “한국교회 ‘헤쳐 모여’”,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7월 22일, 3면

한국교회 진보세력의 대표적인 교회협의회(KNCC)와 보수세력의 대표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그 어느 기구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운동체가 될 수 없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명실 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은 “이들 두 단체가 헤쳐 모이는 제 3의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7월 6일 열린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한국교회 일치의 방향이었다. 이같은 합의는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으로 갈려 있는 한국교회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를 망라할 수 있는 주요 23개 교단의 대표 1인으로 “한국교회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8월 3일 “한국기독교연합”(가칭)이 발족되었다. 지난 8월 3일 한국기독교 연합준비위원회는 “한국기독교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예장합동, 통합, 감리교, 합동정통 등 1백38개 교단에 공문을 발송,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출범을 각 교단 총회에서 인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sup>2)</sup>

교회협과 한기총이 연합함으로써 한국교회에 하나의 대표기관을 세우자는 이러한 노력은 그 후 한달이 지난 시점(2000년 9월 9일) 당사자인 한기총 임원회에서, 그리고 예장 통합교단을 비롯하여 대부분 교단에서 공식적 기구가 아닌 곳에서의 요청을 교단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 공회전되고 있다.<sup>3)</sup> 2000년 9월 18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회는 한기총과 교회협의 양 기구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계의 일치와 연합의 운동은 새 천년 들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계의 모습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한국교회를 이끄는 실무자들의 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와 연합의 운동은 교단 사이의 협력과 연합을 추구하는 오늘날 세계교회의 흐름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2) “1백38개 교단에 ‘연합회 출범’ 인준요청”,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8월 13일 1면

3) “교회협-한기총 연합, ‘하나’ 아닌 ‘셋’ 우려, 본 교단 등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 한국기독교 공보, 2000년 9월 9일, 1면

4) “한기총 교회협, 기구 통합 ‘머나먼 길’”,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1면

## 1. 국제적 흐름

미국에서는 미국교회 협의회(NCC)와 미국 복음주의 연합(NAE)과 로마 카톨릭 사이의 접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가장 큰 에큐메니칼 단체인 미국교회 협의회는 모든 주요 기독교신앙단체들을 함께 엮어 내는 교회기구의 창설을 빠르면 2003년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sup>5)</sup>

미국 NCC에서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게 된 경위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큐메니칼 기구의 고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sup>6)</sup>

미국 NCC의 성명에 따르면, 1999년도에 4백만 달러의 예산 적자에 부딪친 NCC는 “심각한 재정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에도 계속될 현금 유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된 연합운동은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지에서도 성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9월 5일 미국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양대 조직인 교회협(NCC)과 복음주의 연합(NAE)이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교회의 입장 강화를 위해 진보적 교회와 보수적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7)</sup>

특히 빈곤, 낙태, 동성애 등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새롭고 광범위한 교회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NAE)의 캐빈 매노니아 의장은 “옛날식 교회분할이 새로운 비전과 역할의 제시로 무너지고 있으며”, “교회간의 장벽과 말뚝이 무너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복음주의 연합이 교회협과 관계있는 교회들의 복음주의연합 가입금지 조처를 폐지했다. 로버트 에드가 교회협 사무총장은 교회협 집행위원회가 새 연합체가 탄생할 경우 앞으로 3년에 걸쳐 자체 해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교회협은 1950년 창설된 진보성향의 개신교, 성공회, 동방정교회 흑인계교단 등 35개 교파에 5200만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복음주의 연합은 1942년에 창설된 보수성향의 개신교, 복

5) “로마 카톨릭과 보수교단 연대 고려”, 목회자신문, 2000, 6, 10(토요일), 제226호, 2면

6) “미국 교회 협의회, 모든 기독교교단을 포함한 확대기구 창설고려”,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264-267

7) “미국교회, 진보-보수 통합 움직임”, 국민일보, 2000년 9월 7일, 29면

음교와 성령강림교 등 51개 교파에 3000만명의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1999년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총회(ELCA)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00년 7월 5일 시작된 미국성공회 전국의회(ECUSA)에서 두 교단의 “폭넓은 일치”(full communion)를 합의한 “공동 선교의 소명”(Called to Common Mission)이 통과되었다. 이 문서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성직자, 세례, 성찬의 상호인정을 기초로 두 교단이 폭넓은 일치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내 최대 교파인 복음 루터교회와 미국성공회가 역사적 연합을 하였다.

성공회와 루터교는 헌정과 교리의 차이를 갖고 있어 연합은 어려운 일로 세계의 교회에서 여겨 오던 터였다. 아직 주교제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 “공동선교의 소명”이 일치의 접점으로 성공회의 “역사적 사도계승 교리”(historical episcopacy)를 채택, 성직은 인수를 하는 세 명의 주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승된다는 것이 종신주교 직제이다. “공동선교의 소명”은 루터교 목사가 성공회 교회에서 설교를 하길 원한다면 주교에 의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은 두 교회가 성직자와 예배의식을 공유하는 연합협정을 승인했다. 신자가 5백20만명인 루터교회 지도자들은 이 협정을 지난해 1999년에 승인한 바 있고 신자 2백40만명을 가진 성공회는 2000년 7월 8일 이 협정을 승인한 것이다. 두 교단은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배 양식이나 지역기구 등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연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 두 교단은 성직자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별로 한쪽 교회가 약한 곳에서는 다른 교회 성직자의 활동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협정은 루터교 성직자들이 전통적인 성공회 성직자 서품의식을 거치지 않고도 성공회에서 성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지 새로 임명되는 루터교 주교들이 성공회에서 활동하려면 성공회 서품식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교회는 서로 독자적인 양식을 유지하되 서로 연합되는 전형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보여

8) “미국 성공회와 복음주의 루터교 ‘폭넓은 일치 관계 맺었다’, 기독교신문, 2000년 7월 12일, 8면

9) “성공적인 연합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신문, 2000년 7월 17일, 5면

주고 있다.<sup>9)</sup>

## 2. 새 천년의 시대적 당위성: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

한국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장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영적 장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냉전 시대 속에 있으면서 이 냉전을 화해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교권 싸움과 교회 분열을 하면서 냉전체제에 영합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세계가 냉전 사슬을 끊고 남북 정부가 정상회담으로 냉전의 고리를 부수는 마당에 한국교회의 냉전은 아직도 여전하다. 한국교회 안에는 세상 정치처럼 파벌이 있으며, 교단과 교단 사이의 반목과 증오의 벽이 높으며, 진보와 보수 사이의 오해와 갈등과 비방의 벽은 두텁다.

성장의 침체, 교회분열의 계속, 교단내 분열, 성장제일주의 팽배, 개교회주의, 한국교회 내 사이버 난무, 교회내 세습문제로 인한 사회문제화, 도덕성의 추락 등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크게 추락하고 있다. 특히 분열의 온상이 되었던 예장 합동측의 경우, 1979년 제 64회 총회를 계기로 합동 비주류의 핵분열 역사가 시작되어 현재 1백여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불신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교파의 분열양상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를 업신 여기게 하는 사회적 스캔들이 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치부로 비판받아왔다. 한국갤럽이 1998년 발표한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교파분열(24.7%)과 물량주의(24.5%)였다.

한국교회는 분열로 인하여 대사회적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새겨 놓았다. 그러므로 새 천년 한국교회는 분열의 오명을 씻고 일치와 연합으로 가야 한다. 76년의 전통을 지닌 교회협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6개교단만이 회원이 되었고 최근 두 교단(예장통합,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이 가입한 정도이고 11년이라는 짧은 전통

10)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교권다툼과 지역주의", 기독교신문, 2000년 9월 24일 4면

의 한기총은 50개 보수교단이 주축이 된 거대한 기구이다.

더욱이 새 천년에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남북통일에 앞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된 사명을 지니고 있는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남북통일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금식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함은 어쩐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쩐이니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사 58:3-4)

새 천년 들어와 교회일치와 연합운동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성(plurality)을 사고의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시대(postmodern era)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제 한국교회도 흑백논리를 주장했고 자기견해의 독선성을 주장했던 모던시대의 미성숙을 벗어나 자기와는 다른 타자의 고유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시대에서 보다 성숙한 자기 표현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나만이 진리요 선”이라는 배타성과 독선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와 이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a new paradigm of thinking)에 적응하는 것이다.

### 3. 연합에 대한 장애 요인:

#### 반세기 지난후 신앙의 성숙 그러나 인격의 미성숙과 불신 상존

분열된 반세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보수교단도 진보교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통일운동과 사회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사랑의 쌀 나누기, 하비타드 운동, 아프리카 난민 돕기 운동 및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진보교단도 목회와 신자의 경건의 현

장을 떠난 민중신학에 대한 자성을 하면서 교회와 영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양 극단으로 나아가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질시하던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반세기라는 시간의 여과를 거치면서 자기와 다른 형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숙의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7월 6일 연합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태생부터 다른 두 기관의 “헤쳐 모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은 여전하다. 새 기관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두 기관이 해체되지 않을 경우 그 진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예장 합동과 고신 교단을 비롯하여 이러한 간담회조차 불참한 교단 등 “교회 연합에 회의적인 교단”을 과연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에의 문제도 결코 작지 않은 일이다.

교회 연합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건은 아직도 미성숙 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미성숙이다. 교회협은 한기총의 구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기총을 대표기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명분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지난 7월 24일 기독교신문이 주관한 양 기구 실무책임자 특별좌담회에서 드러났다. “교회협은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한기총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협은 교단과 대화 할 수 밖에 없다”(전병금 목사). 이에 대하여 “한기총은 교단과 기관참여는 있지만 개인 참여는 없다”(최성규 목사).<sup>11)</sup> 한기총은 50개 교단과 1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수측 교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협에도 예장 합동과 기성이 들어와 있지 않으며 한기총에는 기장과 기감이 들어와 있지 않다. 교회협이나 한기총 어느 기구도 모두 온전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연합과 일치를 모색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길이 아니며 일치와 연합에 걸림돌이 된다. 교회협이 한기총을 보수교단의 대표적 기구로 인정하고 개별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 접촉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8월 29일 한기총은 소속교단 교단장과 기관대표를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한기총은 한기총과 교회협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11) “한기총, 교회협 연합운동 입장차이 여전, ‘먼저 서로 인정해야’”, 기독교신문, 2000년 7월 26일, 1면

하나가 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제3의 기관을 발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회협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제 3의 기관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기총이 교회협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에 찬성하나 양 기관이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신학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통합절차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결의기구를 거쳐 교단에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sup>12)</sup> 이러한 한기총의 결의와 입장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8월 31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기총 주최로 열린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세미나에서 한기총 대표 이만신 목사는 필자의 주제발표 후에 행해진 토론에서 지난번 (가칭)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각 교단에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출범치도 아니한 단체가 보낸 공문으로써 예상 통합에서는 이것을 공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법적으로도 이러한 공문은 한기총과 교회협의 양 대표의 이름으로 보내어지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앞으로 양기구의 통합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대표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따라서 (가칭) 한국기독교 연합이라는 기구의 이름으로 각 교단에 보내진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은 그 송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비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 기구가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후에 양 기구의 대표의 이름으로 각 교단에 이러한 통합에 대한 승인과 참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신학노선의 차이, 신앙고백의 차이보다는 현실적이고 인간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 예가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은 의식과 직제와 교리가 서로 다르지마는 교회협 안에서 같이 일치하고 연합하는 데 같은 교리와 신앙고백과 의식과 직제가 동일한 장로교, 특히 예장의 합동과 통합, 고신, 대신, 개혁, 합동정통 등의 분열은 인간적인 교파주의, 교권주의적 현실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하나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합과 일치의 운동이 교회협으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sup>13)</sup> 1980년대까지 독재정권과 맞서 온

12) "한기총, '제 3의 연합기관 반대'",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3일 15면

13) 장현구, "연합과 일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기독교 사상, 2000년 7월호, 36



에큐메니칼운동이 독재정권이 사라진 현재 민중신학의 쇠퇴와 더불어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예장 통합과의 갈등에서 교회협은 개방과 개혁이라는 새틀짜기 논의로 확대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해외교회 지원에 의존해온 교회협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해외교회의 재정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재정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sup>14)</sup> 교회일치와 연합운동을 단지 에큐메니칼 운동의 내부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연합과 일치의 구체적인 방향

1) 한기총과 교회협이 중심되어 사안별로 연합사업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연합기구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분열된 개별 교단끼리 재결합을 장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합기구는 지난 8월 3일 제 2차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준비위원회 모임에서 합의된 바 같이 단순히 교회협과 한기총을 연합한 제3의 기구가 아니라 한국교회 교단들의 동의를 얻어낸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되어야 한다.<sup>15)</sup>

한기총과 교회협이 주축이 된 이번 연합과 일치운동은 새로운 연합기구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사안별로 연대하는 공동사업의 실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보수와 진보의 대표격인 두 큰 협의체가 새로운 연합기구로 융합되면서 두 단체는 해체되어 “한국기독교연합”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한기총과 교회협은 실무자들 사이에 통합을 위한 수차례의 비공식 대화를 가져왔고 지난 6월 4일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연합예배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8.15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 연합”(가칭)이라는 기치 아래 각기 분열된 교단간의 재 통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개신교 교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 규모의 장로교단(합동정통과 대신측)과 순복음 교단에서 교리와 직제와 신앙

14) 장현구, “연합과 일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상계서, 35

15) “한국교회 연합위한 기구 설립 추진. 기독교연합준비위(준), 각 교단 총회에 상정키로”,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8월 12일 1면

교백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중소교단끼리 최근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진보와 보수의 벽을 뛰어 넘는 정신: 하나되는 복음정신을 실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래 진보와 보수, 개혁과 복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교회는 분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서적 공동 출판, 사도적 신앙과 복음적인 설교, 세례, 성만찬, 기도 그리고 영적 교제 등을 통하여 연합의 가시적인 전제들을 두루 지니고 있다.

교회협과 한기총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연합예배 및 한국교회 신도대회를 6월 4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후에 맞이하는 8.15 광복절이 한국 민족의 “제 2의 광복”이 되도록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기총은 1989년 사회운동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회협의 운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한기총과 교회협, 두 기관이 지난 10년 넘게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최근에 들어와 공동으로 선언문을 내고 같이 자리를 하여 예배를 드리고 일치와 연합을 모색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며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다.

### 3) 새 연합기구의 당위성 및 성격 명료화

한기총과 교회협은 교단연합체 구성의 명분을堂堂하게 한국교회 앞에 내놓고 모든 교회들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연합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편 1절).

교회협이 초청한 개신교 주요교단 23개 가운데 16개 교단이 참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연합과 일치의 노력을 해보고자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새 연합기구 출범때 한기총과 교회협 양기구가 발전적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도를

연합운동 추진 실무책임자들은 피력하고 있다.

새 연합기구란 전체를 연결시키는 기구로서 각 교단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 기구는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협력하도록(coordination)하고 함께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협과 한기총은 각각 대표성을 인정하는 교단들에게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는 덩치는 큰 데 힘이 효율적으로 결집되지 않아서 대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카톨릭에 비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선언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회의 뼈를 깎는 듯한 영적 각성으로 개혁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시대적 요청”으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4:3-6).

더욱이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과 상호비방이 난무한 한반도에 남북정상의 화해와 더불어 새로운 화합과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남북을 갈라놓은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통일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교권과 독선과 상호불신의 벽에 갇혀 있다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지난 광복절에 있었던 서울과 평양에서의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은 혈육의 정을 풀므로써 50년간 사무친 깊고 깊은 민족의 한을 풀어 주었다. 그런데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을 모신 영적 형제로서 교파적으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진정한 만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권력도 아닌 바로 우리 교계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명예욕과 독선과 이권의 우상이 아닌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능력있고 거룩하고 위엄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인간의 편의에 맞는 교권의 신, 바알 신, 파벌의 신, 금송아지 우상의 신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파벌과 명예욕과

지방색과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그의 주권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사회 가운데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가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sup>16)</sup>

#### 4) 연합과 일치와 목적과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새로운 기구를 향한 대화가 단지 교회협이 재정적 위기 극복이나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기총이 단순한 대사회적 위상 제고나 연합에 대한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추진하거나 자리나 감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기구 창설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자기 정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기총과 교회협은 서로에 대한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보수교단 인사들은 진보교단인사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개인구원은 없고, 사회구원만 하려고 해. 믿음이 없어".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왔지. 너희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교단 인사들은 보수교단 인사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인권운동하고 감옥을 가고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때, 당신들은 대중집회하고, 조찬기도회에 가서 사람 죽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었잖아"라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역사적으로 남겨진 심리적인 편견과 응어리를 풀어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일치와 연합에 임하는 열린 자세이다.

#### 5) 새 연합체제의 신앙고백: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성숙한 신학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신앙고백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되어야 한다. 신학적 정체성은 지엽적인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16) Donald W. McCullough, *The Privatization of the God, The Dangerous Illusion of Manageable Deity*, 박소영 역, *하찮아진 하나님? 대한 기독교서회*, 1996, 9-23

17) "KNCC와 한기총: 일치를 위한 선교사역의 공감대 찾기"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75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신앙고백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신앙고백은 이러한 성경적이고 사도적 신앙고백에 기초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연합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경, 한 세례, 한 몸, 한 교회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선언하는 신학적 정체성을 기초로 하는 신앙고백이 있을 때 신학적 정체성에 민감한 교단인 예장 합동이나 고신이나 개혁교단이 이 연합운동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여태까지 반세기 동안은 진보교단의 사회구원과 보수 교단의 개인구원이 복음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서로가 너무 극단으로 달렸다. 보수교단은 개인구원인 전도가 최선의 사회 참여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적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교단도 선교, 탈북자, 탈북 난민, 민간교도소 설치 등 과거 같으면 교회협이 해야 할 사업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신앙고백은 사도신경과 종교개혁정신에 기초하면서 더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와 환경과 문화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 때야만 개인구원과 신앙고백에 민감한 보수교회와 사회구원과 사회봉사와 참여에 민감한 진보교회가 다 같이 이 신앙고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새 연합기구 탄생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구개편이 아니라

상호인정과 신뢰 속에서 대화가 필요

일치와 연합은 물리적인 새로운 연합기구의 추진보다는 심리적인 상호신뢰와 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합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회협은 교단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기총은 기구 대 기구의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되기 위한 일치와 연합이라는 대원칙만 내세운 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sup>18)</sup>

교회협 김동완 총무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반대할 사람

은 누구도 없으며 이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하나,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이 하나되기는 힘들 것이다”.<sup>18)</sup> “교단들간의 연합의 목적, 정신, 사업방향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sup>20)</sup>

한기총 박영률 총무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성급하게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낳을 우려가 많다. “정치권에도 보수와 혁신의 구도 있듯이 기독교계에서도 보수와 혁신의 구도가 필요하다”.<sup>21)</sup> “교회협과 신학과 신앙의 차이로 양대기구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업별 연합운동은 가능하다”.<sup>22)</sup> 그리고 그는 “제 3의 세력의 압력”에 밀린 교회협과의 연합과 일치는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23)</sup>

현실적으로 무리한 물리적인 연합기구의 탄생보다는 양대 기구 사이에 있는 불신을 씻는 상호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다. 더욱이 예정 합동이나 고신, 개혁 교단이 마음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59년 예정의 몸통이 분열될 때 WCC 문제가 골간이었다. 교회협은 WCC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협이 주도하는 연합운동에 합동과 고신과 개혁 교단등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한기총이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기총과 공식관계가 없는 기장과 기감을 연합기구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교회협은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한기총의 복음운동과 교회협의 사회운동은 기독교 복음의 뿔 수 없는 두가지 축이다. 서로의 특성을 살리고 인정한다면 한국교회는 새 천년 사회를 위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합과 일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기총과 교회협 양기구가 제삼의 기구로의 “헤쳐모여”라는 구조조정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연합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서로간에 신뢰와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고 인

18) “교회협 한기총 ‘하나되기 힘들다’”. 새누리 신문, 2000년 8월 6일자 1면

19) “한국교회 하나되기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 “회개 운동과 교회지도자들의 헌신 필수”, - 김동완, 박영률, 김원배. 국민일보, 2000년 8월 26일 24면

20) “한기총, 교회협, 기구통합 ‘머나먼 길’”,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1면

21) 상동

22) “한기총, 교회협, 기구통합 ‘머나먼 길’”,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1면

23) “교회협, 한기총, 외부세력 압력 불가 표명”,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3면

정함으로써 교단들 간의 연합의 목적, 정신, 신앙고백, 사업방향에 대해 공청회,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충분한 대화와 공감대와 상호간의 신뢰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7) 삼위일체적 사고, 다양성의 인정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새로운 사고

흑백논리의 사고가 아니라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구주와 세례와 신앙고백으로 하나를 이루는 새로운 사고, 삼위일체론적 사고가 요청된다.

사회봉사 일변도나 영혼 구원 일변도가 아니라 이 두 개가 복음의 두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1970년대 로잔 선언에서 천명된 바 같이 신발의 짝이요 안경의 짝이라는 사실이다.<sup>24)</sup> 복음화와 사회봉사는 교단의 특성 즉 달란트에 따라서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연합과 일치여 여기에서 참여하는 개체들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정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하나의 신앙고백, 하나의 주, 하나의 세례, 하나의 성례전이라는 통일성과 단일성으로 하나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사고이다. 삼위일체적 사고의 핵심은 교회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요, 일치 속에 있는 다양성이다.

8) 새 천년의 역사적 과제 - 십자가적 사고로만 가능

<1> 이상적(理想的)인 안은 한기총과 교회협을 중심으로 새 연합기구를 탄생시키고 두 기구는 그 속에 거름이 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한기총이나 교회협에서 참여하는 대표들이 개인의 감투욕, 명예욕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명예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리스도가 새 연합체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24)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 376-379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III, 개혁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251-262

것처럼 교계를 이끄는 개인들이 죽고 희생을 각오할 때 연합이 가능하다. 연합은 십자가적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감투싸움과 밥그릇 싸움이 되면 변질되고 실패한다. 각 교간과 개인의 명예욕과 독선이 죽고 성경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한국교회 연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에 하나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연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2〉 그러나 루터가 말한 바같이 교회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기 때문에 원숙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경험에 의하면 한기총과 교회협의 기구 통합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양 기구에서 연합에 반대하는 잔류파를 남겨 하나가 되지 않고 결국 세가지 기구를 만드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한기총 + 교회협 = 기독교연합 이 아니라 한기총 + 교회협 = 기독교연합 + 한기총' + 교회협' 이 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한국의 가장 큰 교파인 장로교의 통합 과정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 두 교단이 통합되면 하나의 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교단으로 다시 분열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100여개의 장로교단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이러하다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우려는 2000년 9월 한국교회가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시화되는 실정이다. 한기총은 2000년 8월 29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한기총과 교회협의 각 실행위원회에서 연합과 일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날 참석한 교단대표들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곳에서의 요청을 교단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sup>26)</sup> 예장 통합교단의 임원들도 교회협과 한기총 등 당사자가 빠진 논의구조에서는 “제 3의 기구가 우려된다”면서 “오는 제 85회 총회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sup>27)</sup>

25) 민성식, “화해, 다양성 속의 일치 추구”,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46

26) “교회협-한기총 연합, '하나' 아닌 '셋' 우려”,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9월 9일 1면



따라서 연합운동은 당사자들의 의견일치에 입각한 절차를 밟고 한국교회의견일치를 조율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단의 지는 단일기구인 “한국기독교연합”이 공식적으로 발족될 때 현 한기총과 그 속에 흡수되어 없어져야 한다.<sup>27)</sup> 여기에는 두 기구가 진정한 하나의 기생시키기 위해 한알의 밀알처럼 죽는 십자가의 정신과 행동이 요청된다. 그 권과 감투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통합을 시도이다. 그것도 억지로 감투 나누어 먹기 식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한걸음씩 한국교회 전체가 성숙하여 기구의 통합으로 자기에 온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 한 주, 한 세례, 한 영이라는 신앙고백 안에서 연합을 체질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예컨대, “한기총연합회”(한장련) 처럼 같은 신앙고백과 전통을 지닌 교단 끼리 대화하고 연합을 시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우 여태까지 서로 백안시 하던 보수교단들과 진보교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게 되면서 교단들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강단의 벽”이 야금야금 허물 시작했다. 그 결과 작년 예장 합동측 총회에서 기장의 이중표 총회장이 참사를 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발생했다. 보수교단인 대신측과 합동정통측도 대명사로 인식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에 가입하게 된 것도 한장련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980년대 감리교회를 비롯한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등 웨슬리안 교회들이 “웨슬리안 교단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임도 새롭게 활성화된다면 한장련 못지 않은 결실을 기 있다. 그리고 성공회와 루터교 등 같은 주교 전통을 지닌 교회들도 하나의 되어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구적인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한기총과 교회협, 그리고 각 직조가 같은 분열된 교단들은 국내 전도, 해외선교, 통일운동, 나눔운동, 민중

27) “대표기구 아닌 ‘제 3의 기구’ 분위기 냉담”,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9월 9일, 3면

문제, 외국노동자 문제등 대 사회적 문제 대하여 사안별로 보조를 같이 하면서 상호배우고 이해하고 오해를 불식하고 서로를 잘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구적이고 교단적 연합을 하여 먼저 하나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기독교연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학과 신앙과 직제가 같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예장은 백여개로 나누어져 있고 감투옥과 명예옥과 교권이라는 인간적 욕심이 그 중요 원인이기 때문에<sup>29)</sup> 교회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연합과 일치에 빈마음을 가지는 헌신이 필수적이다.

### 맺음말

교계 전반에 흐르는 기류는 교회협의회와 한기총으로 양분되는 기구가 통합되어 하나의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운동에 소극적인 교단의 참여 유도 그리고 새 연합기구 출범과 더불어 양기구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가야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두 기구가 지난 6월 4일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기도회를 함께 갖기로 한 것이나 8월 15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교회연합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기독교연합 준비위원회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각 교단총회가 이 새로운 기구를 공식으로 인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00년 9월 18일에 들어와 한기총과 교회협의 양 총무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한 제 3의 기구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표출함으로써 양기구의 양기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 기구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듯한 한국기독교연합 준비위 간의 이견의 차이가 표출되고 앞으로 연합과 일치는 그 행보가 가시밭 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준비위는 단지 양기구를 하나로 만드는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한국교회의 교단의 연합과 일치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말로만 그치는 믿음

29)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교권다툼과 지역주의”, 기독교신문, 2000년 9월 24일, 4면한국교회의 분열은 장로교단에 있어서 초창기의 고신측, 기장, 합동측의 분열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권 다툼으로 인한 분열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과 한국 민족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되지 못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교회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인간의 파벌과 명예욕에 더 좌우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천년이라는 시대적 달력을 통해서도 냉전체제의 종언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는 먼저 경청해할 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앉은 자리와 감투나 세속적 명예심에 집착해 분열과 갈등을 고착화 한다면 한국교회는 이 땅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상실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 주님, 한분의 하나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교단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시적인 교회로서 이미 하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로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그 수단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서로 다른 교단 속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요 가시적으로도 연합적인 사업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한국 개신교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연합기구는 21세기라는 새 천년의 시대적 요청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필요시되는 과제다.

## 참고문헌

1. “한국교회 ‘헤쳐 모여’”,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7월 22일, 3면
2. “1백38개 교단에 ‘연합회 출범’ 인준요청”,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8월 13일 1면
3. “교회협-한기총 연합, ‘하나’ 아닌 ‘셋’ 우려, 본 교단 등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9월 9일, 1면
4. “한기총 교회협, 기구 통합 ‘머나먼 길’”,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1면
5. “로마 카톨릭과 보수교단 연대 고려”, 목회자신문, 2000, 6, 10(토요일). 제226호, 2면
6. “미국 교회 협의회, 모든 기독교교단을 포함한 확대기구 창설고려”,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264-267
7. “미국교회, 진보-보수 통합 움직임”, 국민일보, 2000년 9월 7일, 29면
8. “미국 성공회와 복음주의 루터교 ‘폭넓은 일치 관계 맺었다’”, 기독교신문, 2000년 7월 12일, 8면
9. “성공적인 연합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신문, 2000년 7월 17일, 5면
10. “한기총. 교회협 연합운동 입장차이 여전, ‘먼저 서로 인정해야’”, 기독교신문, 2000년 7월 26일, 1면
11. “한기총, ‘제 3의 연합기관 반대’”,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3일 15면
12. 장현구, “연합과 일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기독교 사상, 2000년 7월호, 36
13. “한국교회 연합위한 기구 설립 추진. 기독교연합준비위(委), 각 교단 총회에 상정키로”,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8월 12일 1면
14. Donald W. McCullough, The Privatization of the God, The Dangerous Illusion of Manageable Deity, 박소영 역, 하찮아진 하나님? 대한 기독교사회, 1996, 9-23

15. "KNCC와 한기총: 일치를 위한 선교사역의 공감대 찾기",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75쪽
16. "교회협 한기총 '하나되기 힘들다'". 새누리 신문, 2000년 8월 6일자 1면
17. "한국교회 하나되기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 "회개 운동과 교회지도자들의 헌신 필수", - 김동완, 박영률, 김원배. 국민일보, 2000년 8월 26일 24면
18. "한기총, 교회협, 기구통합 '머나먼 길'",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1면
19. "교회협, 한기총, 외부세력 압력 불가 표명", 기독교연합신문, 2000년 9월 24일, 3면
20.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헌학회, 성광문화사, 1995, 376-379
21.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III, 개혁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251-262
22. 민성식, "화해, 다양성 속의 일치 추구", 기독교사상 2000년 7월호, 46
23. "교회협-한기총 연합, '하나' 아닌 '셋' 우려", 한국 기독교공보, 2000년 9월 9일 1면
24. "대표기구 아닌 '제 3의 기구' 분위기 냉담", 한국기독교공보, 2000년 9월 9일, 3면
25. "기독교연합 준비위 활동, 각 교단 총회 승인받게 노력", 조선일보, 2000년 9월 16일, 23면
26.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교권다툼과 지역주의", 기독교신문, 2000년 9월 24일 4면
27. 전택부, 한국교회 발전사, 대한 기독교서회, 1987
28.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헌운동사, 대한 기독교서회, 1987

## Abstract

# A Study on the Agreement and Unity of Korean Church for the New Millennium

Kim, Yung Han

The half century after the Korean church splitted the both partie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got together, made an agreement to be united as a brother in Jesus Christ. It is a big historical step for KNCC and KCCC to begin a common effort for being united in the one institution. This task is a most crucial one for the Korean church for the New Millennium. Until yet the two parties lived in the church split and hegemony fight. The wall of hate and fight between the denominations has been high, the wall of misunderstanding, conflict and blame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ick.

Korean church has been facing the problems such as the slump of growth, the continuance of church split, spreading of the ideology of growth-is-the first, the ideology of priority of the individual church, the heresy emergence in the church, the transmission of the ministry office to the son, the fall of the moral. Due to these, the dignity of Korean church has fallen to the ground. Now it is a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repent herself, to reform herself, to be united, and to be aware of social ethical consciousness

and responsibility.

Despite such an effort for being united there are elements of hindrance in terms of unity. They are above all the immaturity of personality and mistrust among the church leaders of the both parties. The mood of church has become mature, filtering through the time, has formed the shape of maturity, finding the shape of the anther brother who is different from the self.

The concrete direction of the agreement and unity movement of Korean church is as follows:

Firstly, KNCC and KCCC have to make effort to do the united thing in terms of the projects, thereby giving birth to the new united institution, and promoting the reunion among the divided denominat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ave a spirit to jump over the wall of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to practise the spirit of the gospel to become one.

Thirdly, it is important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the new united institution and to clarify its character before the Korean church.

Fourthly, the purpose and philosophy of the unity and agreement for the Korean church should be clarified. It should not be just to end in the reconsidering the social constellation. Its purpose should be the reforming of the church. The both sides have to solve the psychological prejudices and regretfulness toward each other.

Fifthly, The confession for the new united institution is the mature theology to include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It is opening the door for the joining of the Hapdong, Koshin and Gaehuyk by clearly affirming the theological identity.

Sixthly, not a reforming of the institution, but a mutual acknowledgement and dialogue in the trust is crucial for the birth of new united institution.